

경호전공대학생의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진환* · 조철규**

요 약

본 연구는 경호전공 대학생의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진로준비 행동을 행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학과만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 경기도 Y시에 위치한 Y대학교, 경상북도 G시의 K대학교, 충청남도 C시의 H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호전공 대학생들 가운데 남·여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설정한 후 무선표집법(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총 35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 Duncan사후비교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기대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The Effect of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urity on the Career Expectation Consciousness

Kim Jin-Hwan* · Cho Cheol-Ky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 effect of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urity on the career expectation consciousness, and through this to propose basic data to help college students prepare positive school life and career and increase school life adaptation; doing this, it is to investigate the cause to promote not only their development but also school development. As of 2013, I set up a population targeting female and mal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urity at Y University located in Y City, Gyeonggi Province, K University in G City,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H University in C City, South Chungcheong Province and conducted study targeting the total 352 students using the random sampling method. The research tool was questionnaires, which I used by recomposing on the basis of the precedent studies at home and abroad. Regarding data processing, I used SPSS WIN 18.0 and carried out frequency analysis, one-way analysis of duncan variance, post hoc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i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the above research methods and data analysi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I drew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the departm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urity had a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he career expecta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urity had a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the effect of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urity on the career expectation consciousness was partial.

Key words : major in security science,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expectation consciousnes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choice

접수일(2014년 1월 24일), 수정일(1차: 2014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2014년 2월 27일)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신저자)

1. 서 론

사람이 일생동안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직업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직접적인 활동은 직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직업은 한 개인의 삶의 본질을 결정하고 삶의 내용과 수준,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간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거주지 등 생활의 많은 측면이 영향을 받게 된다[10].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꾸준히 주어져야 한다. 특히 대학은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유능한 인력을 사회에 배출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고 유능한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얻으며[6], 나아가 직업 전문인을 양성하는 직업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4].

대학에 진학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춰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현재 청년실업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이미 사치스러운 일이 되었고, 어떠한 곳이던지 취업만 할 수 있다면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때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즉, 가능한 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들의 관심 분야를 과잉하여 각 학과의 전공과 특성을 살려 그 학과 학생들의 욕구와 현재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알맞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7].

그러나 대학 진학 시에 진로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한 결과 자신이 속한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 상실로 인해서 성적불량, 학교에서의 사회적 고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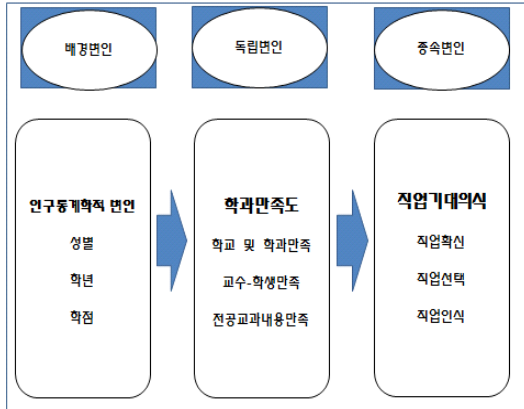
소외감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불안, 신경증, 정신병 등의 각종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대학의 전반적이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 개발의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16].

실제로 대학의 학생생활 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들 중 전공이나 진로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림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센터의 2011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으로 진로문제를 선택한 학생이 22.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상담센터에서 가장 받고 싶은 검사도 적성검사가 40.4%로 조사되었다[19]. 최근에는 입학 사정관제도가 도입되면서 고등학교 시기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동시에 직업이 더욱 전문화 되고 세분화 되면서 과거보다 자신의 진로를 미리 결정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경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장래의 유망직종이라는 생각으로 전공을 선택하여 취업의 용이성을 기대하고 입문을 했지만 아직 정립되지 못한 학문적 기반이나 열악한 사회적 제도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아울러 좁은 취업문으로 인해 그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학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직업기대의식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학과만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및 가설



<그림 1> 경호전공 대학생들의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에 대한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경호전공대학생의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설정한 관련변인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경호전공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과만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경호전공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직업기대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경호전공 대학생들의 학과만족은 직업기대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3년 경기도 Y시에 위치한 Y대학교, 경상북도 G시의 K대학교, 충청남도C시의 H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호전공 대학생들 가운데 남·여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설정한 후 표집은 무선표집법(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8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28부는 삭제하였으며,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수는 총 352명이다.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 연구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n)	백분율(%)	
성별	남자	252	71.6
	여자	100	28.4
학년	2학년	122	34.7
	3학년	124	35.2
	4학년	106	30.1
학점	3.0미만	23	6.6
	3.0이상~3.5미만	69	19.6
	3.5이상~4.0미만	149	42.3
	4.0이상	111	31.5
전체	352	100	

2.3 조사도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설문지를 이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단계 평가를 하게 하였다.

경호전공 대학생의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으로 학과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하혜숙(1999)[18]의 연구에서, 직업기대에 대한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ren(1979)[17]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를 정채기(1991)[15]가 번안하여 타당화시킨 후에 서우석(1994)[5]의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를 중심으로 이 연구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으며, 선별된 예비설문지에 발견된 문제점을 재검토 및 수정을 통해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 사용하였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주요 구성 및 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변인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배경 변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학년, 학점	3
독립 변인	학과만족도	학교 및 학과만족, 교수-학생만족, 전공교과내용만족	26
종속 변인	직업기대의식	직업확신, 직업선택, 직업인식	32
총 문항 수			61

2.4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경호전공 대학생의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지는 경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사전에 작성한 설문지에 대한 검토 및 논평을 요청한 후 내용 타당도 및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논의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타당도는 요인간의 내적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요인회전의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회전방식은 베리맥스(varimax) 직교회전방식을 선택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여 신뢰도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내용이 중복 또는 공통성이 낮은 문항은 연구자의 판단에 의하여 삭제함으로써 신뢰도를 더 높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과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과만족도의 하위 측정변인 학교 및 학과만족(요인적재치: .635~.805), 교수-학생관계(요인적재치: .549~.791), 전공교과내용(요인적재치: .656~.790)의 세 개의 다차원적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학교 및 학과만족 .958, 교수-학생관계 .958, 전공교과내용 .862로 나타났다.

<표3> 학과만족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문항	요인			
	학교 및 학과만족	교수-학생관계	전공교과내용	
23.	.805	.282	.197	.767
22.	.796	.256	.174	.729
19.	.793	.206	.236	.727
18.	.777	.195	.253	.706
25.	.770	.346	.244	.773
24.	.765	.246	.294	.733
21.	.741	.344	.238	.725
26.	.721	.304	.212	.657
15.	.678	.253	.460	.736
16.	.666	.177	.329	.583
20.	.651	.332	.346	.653
17.	.635	.272	.264	.547
8.	.174	.791	.252	.720
7.	.150	.784	-.085	.644
10.	.367	.664	.251	.640
6.	.349	.664	.166	.590
4.	.269	.609	.453	.648
2.	.406	.582	.410	.672
5.	.320	.579	.436	.627
3.	.359	.549	.379	.574
12.	.303	.217	.790	.763
13.	.422	.147	.739	.746
11.	.418	.365	.656	.738
설명력	7.715	4.566	3.415	
분산설명력	33.546	16.853	14.846	
누적설명력	33.546	53.398	68.244	
Cronbach’s α	.958	.958	.862	
KMO = .959, $\lambda^2 = 6599.809$, sig = .000				

<표 4>에서 직업기대 구성요인과 관련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직업확신(요인적재치: .642~.743), 직업선택(요인적재치: .678~.747), 직업인식(요인적재치: .708~.840)으로 세 개의 다차원적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직업확신 .906, 직업선택 .877, 직업인식 .724로 나타났다.

<표4> 직업기대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문항	요인			
	직업확신	직업선택	직업인식	
13.	.743	.361	-.028	.682
3.	.742	.146	.104	.583
4.	.730	.259	.258	.667
5.	.722	.146	.069	.547
9.	.716	.278	-.072	.596
7.	.703	.195	.184	.566
6.	.696	.123	.249	.561
12.	.673	.408	-.033	.621
10.	.642	.345	.225	.582
28.	.295	.747	-.015	.645
15.	-.067	.720	.255	.589
18.	.304	.718	.052	.611
29.	.324	.711	.116	.624
26.	.309	.710	.073	.606
21.	.190	.696	.084	.528
22.	.399	.678	-.017	.620
1.	.062	.077	.840	.715
2.	.272	.136	.708	.594
설명력	5.170	4.228	1.536	
분산설명력	28.722	23.491	8.535	
누적설명력	28.722	52.212	60.747	
Cronbach's α	.906	.877	.724	

$KMO = .921, x^2 = 3311.971, sig = .000$

2.5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기입한 자료를 회수한 다음 설문지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극단치(outlier)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SPSS WIN 18.0 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입력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 기법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빈도분석(analysis of variance),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Dunca 사후비교분석,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

본 연구의 가설 1은 “경호전공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과만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였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의 차이에 대한 T-test와 F검정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의 차이는 학교 및 학과만족($t=2.649, p<.01$), 교수-학생만족($t=3.062, p<.01$), 전공교과내용($t=2.386, p<.05$)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들에서 남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의 차이는 학교 및 학과만족($F=2.692$), 교수-학생만족($F=1.390$), 전공교과내용($F=.954$)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요인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순으로 평균이 나타났다. 학점에 따른 학과만족의 차이는 학교 및 학과만족($F=2.165$), 교수-학생만족($F=.483$), 전공교과내용($F=.1.132$)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의 차이에 대한 t-test과 F검증

구분	N	학과만족						
		학교 및 학과만족		교수-학생만족		전공교과내용		
		M	SD	M	SD	M	SD	
성별	a.남자	252	3.7037	.79647	3.8056	.70527	3.7407	.78317
	b.여자	100	3.4500	.84470	3.5500	.70822	3.5167	.82249
	t값		2.649 *		3.062**		2.386*	
학년	a.2학년	122	3.7664	.73220	3.8135	.61746	3.7568	.75215
	b.3학년	124	3.5853	.84427	3.7177	.71725	3.6237	.81757
	c.4학년	106	3.5307	.86391	3.6580	.80683	3.6478	.83169
	F값		2.692		1.390		.954	
학점	a.3.0미만	23	3.2790	1.10771	3.5924	.87029	3.3913	1.02815
	b.3.0이상~ 3.5미만	69	3.5423	.85518	3.7681	.71527	3.6570	.80839
	c.3.5이상~ 4.0미만	149	3.7036	.77197	3.7601	.62762	3.7002	.73291
	d.4.0이상~	111	3.6637	.77018	3.7038	.79020	3.7177	.82658
	F값		2.165		.483		1.132	
	Duncan		c, d < b, a		-		-	

*p<.05, **p<.01

본 연구의 가설 2는 “경호전공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직업기대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였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의 차이에 대한 T-test와 F검정 결과 <표 6>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직업확신의 차이는 직업선택(t=2.724, p<.01)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남자의 평균이 더 높았지만, 직업확신(t=1.779), 직업인식(t=1.42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직업기대의

차이는 직업확신(F=.347), 직업선택(F=.641), 직업인식(F=.106)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요인들이 2학년의 평균이 높았다. 학점에 따른 직업기대의 차이는 직업확신(F=3.681, p<.05)에서 4.0이상인 학생들이 3.0미만은 학생들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선택(F=4.852, p<.01)에서 4.0이상, 3.5이상~4.0미만, 3.0이상~3.5미만인 학생들이 3.0미만은 학생들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기대(F=.899)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기대의 차이에 대한 t검정과 F검증

구분	N	직업기대						
		직업확신		직업선택		직업인식		
		M	SD	M	SD	M	SD	
성별	a.남자	252	3.5948	.69998	3.6213	.67822	3.9502	.68594
	b.여자	100	3.4478	.69782	3.4000	.71038	3.8350	.67814
	t값		1.779		2.724**		1.425	
학년	a.2학년	122	3.5774	.73905	3.6159	.70850	3.9385	.61851
	b.3학년	124	3.5108	.72479	3.5300	.73247	3.8984	.71276
	c.4학년	106	3.5744	.63012	3.5256	.62924	3.9151	.72857
	F값		.347		.641		.106	
학점	a.3.0미만	23	3.2319	.65299	3.0994	.83792	3.8478	.81791
	b.3.0이상~3.5미만	69	3.4251	.78659	3.4907	.79293	3.8696	.67329
	c.3.5이상~4.0미만	149	3.5675	.65837	3.5714	.61423	3.8851	.70251
	d.4.0이상~	111	3.6797	.68637	3.6782	.66127	4.0045	.63781
	F값		3.681*		4.852**		.899	
	Duncan		a, b<c, d		a<b, c, d		-	

*p<.05, **p<.01

3.2 학과만족과 직업기대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학과만족으로 설정하고 하위변인으로는 학교 및 학과만족, 교수-학생 만족, 전공교과내용으로 종속변수를 직업기대로 설정하여 하위변인으로 직업확신, 직업선택, 직업인식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과만족과 직업기대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 및 학과만족은 직업확신($r=.428$)·직업선택($r=.641$)·직업인식($r=.243$)에 $p<.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만족은 직업확신($r=.372$)·직업선택($r=.523$)·직업인식($r=.299$)에 $p<.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교과내용만족은 직업확신($r=.314$)·직업선택($r=.592$)·직업인식($r=.210$)에 $p<.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및 학과만족과 교수-학생만족·전공교과내용만족은 직업확신과 직업선택·직업인식 모두에게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7> 학과만족과 직업기대의 상관관계 분석

요인	학교 및 학과만족	교수-학생만족	전공교과내용	직업확신	직업선택	직업인식
	A	B	C	D	E	F
A	1					
B	.733**	1				
C	.738***	.678***	1			
D	.428***	.372***	.314***	1		
E	.641***	.523***	.592***	.622***	1	
F	.243***	.299***	.210***	.339***	.269***	1

*** $p<.001$

3.3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3은 “경호전공 대학생들의 학과만족은 직업기대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과만족과 직업기대인식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3.1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인식(직업확신)에 미치는 영향

<표 8>은 연구대상자의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 하위요인인 직업확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8> 학과만족과 직업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직업기대(직업확신)			t	F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SE	β		
상수	2.069	.187	-	11.091***	
학교 및 학과만족	.308	.069	.359	4.436***	27.411***
교수-학생만족	.137	.073	.139	1.876	
전공교과내용만족	-.039	.066	-.045		
$R^2 = .191, \text{adj. } R^2 = .184$					

*** $p<.001$

<표 8>에서 본 바와 같이 학과만족이 직업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교 및 학과만족($\beta=.359$)은 직업확신에 $p<.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수-학생만족($\beta=.139$)은 직업확신에 $p<.05$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교과내용만족($\beta=-.045$)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및 학과만족과 교수-학생만족이 직업확신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시사하

고 있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3개의 독립변인은 직업확신 전체변량의 19.1%를 설명해주고 있다.

3.3.2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표 9>은 연구대상자의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 하위요인인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9> 학과만족과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직업기대(직업선택)			t	F
	B	SE	β		
상수	1.298	.153	-	8.480	
학교 및 학과만족	.363	.057	.427	6.370	92.194
교수-학생만족	.040	.060	.042	.676	***
전공교과내용만족	.215	.054	.248	3.995	***
$R^2 = .443, \text{adj.}R^2 = .438$					

***p<.001

<표 9>에서 본 바와 같이 학과만족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교 및 학과만족($\beta = .427$)은 직업선택에 $p < .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교과내용만족($\beta = .248$) 또한 직업선택에 $p < .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학생만족($\beta = .042$)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및 학과만족과 전공교과내용만족이 직업선택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시사하고 있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3개의 독립변인은 직업선택 전체변량의 44.3%를 설명해주고 있다.

3.3.3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직업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 10>은 연구대상자의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 하위요인인 직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10> 학과만족과 직업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직업기대(직업인식)			t	F
	B	SE	β		
상수	2.834	.193	-	14.674	
학교 및 학과만족	.049	.072	.059	.688	11.528
교수-학생만족	.253	.075	.264	3.354	***
전공교과내용만족	-.011	.068	-.013	-.164	
$R^2 = .091, \text{adj.}R^2 = .083$					

***p<.001

<표 10>에서 본 바와 같이 학과만족이 직업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교 및 학과만족($\beta = .059$)과 전공교과내용만족($\beta = -.013$)은 직업인식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학생만족($\beta = .264$)은 $p < .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학생만족이 직업인식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시사하고 있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3개의 독립변인은 직업인식 전체변량의 9.1%를 설명해주고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경호전공 대학생의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직업기대(직업인식)의 차이, 둘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학과만족, 직업기대(직업인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기술하였다.

첫째, 경호전공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학교 및 학과만족, 교수-학생만족, 전공교과만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년과 학점은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전체 학교 및 학과만족도, 하위영역별 만족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상진·김재엽(2007)[3], 허진규(2005)[20], 이선영(2009)[9], 이진희(2009)[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심은숙(2003)[8]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과 만족도는 물론 하위영역별로 교수-학생간의 관계 만족, 전공교과내용만족에 대한 개인의 시각에 따른 인식만족,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과의 대외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응력이 좋으며 소속감을 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호전공대학생들의 학과 전공 특성에 맞는 교과과정을 재편성하고 그 과정이 학생들의 진로와 자아실현에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의 차이에서는 2학년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학년, 4학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권혁진(2009)[2], 이선영(2009)[9]의 연구에서와 같이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학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을 일치한다.

학점에 따른 학교 및 학과만족은 3.5이상-4.0미만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4.0 이상, 3.0이상-3.5미만, 3.0미만 집단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권혁진(2009)[2]의 연구에서와 같이 성적에 따른 학과만족도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점에 따라 학과만족도의 차이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직업기대의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는 성별에서 직업선택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직업확신과 직업인식에서는 차이가 없다. 학년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학점은 직업확신과 직업선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직업인식에서는 차이가 없다. 성

별에 따른 직업선택의 경우 남자집단이 여자집단보다 높다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남녀 성향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여학생의 경우 고용구조나 취업률 면에서 남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차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여학생들이 자신의 학과에 대한 만족과 자신감을 취업이나 진로로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인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의 하위요인인 직업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교 및 학과만족은 직업확신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수-학생만족은 직업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교과내용만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자신이 장차 현실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은 실제 그 일을 추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다.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은 개인의 일에 대한 동기 지향이나 직업가치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과 상호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임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 불확실한 진로로 고민하는 학생들과 상담할 기회를 갖게 될 경우, 교수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본질적인 흥미가 무엇이니,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고 싶은지 등 충분한 자기탐색의 기회를 갖고 꾸준히 추진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의 하위요인인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교 및 학과만족은 직업선택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교과내용만족 또한 직업선택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학생만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은미(2005)[1]의 연구에서도 대학체육전공자들의 학과만족이 직업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정보연(2010)[13]의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는 직업선택요인의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하지만 정유진(2011)[14]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직업을 정하고 직장을 구하는 활동은 개인의 인생이 걸려있는 만큼 본인 스스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학생들은 전공분야에서의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배양하여 이에 부합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육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다섯째,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의 하위요인인 직업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교 및 학과만족과 전공교과내용만족은 직업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학생만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재구(2007)[12]는 체육전공자들의 직업기대가 사회적 인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따라서 진로 또는 직업선택 과정보다는 직업세계에 대한 보다 체험적이고 전반적인 이해나 직업의 대한 가치 및 태도 인식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경호전공 대학생의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학교생활과 진로준비를 도우미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그로인한 학교생활의 적응도를 높여, 본인은 물론 학교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13년 현재 경기도 Y시에 위치한 Y대학교, 경상북도 G시의 K대학교, 충청남도C시의 H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호전공 대학생들 가운데 남·여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설정한 후 무선표집법(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총 35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 사후비교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른 학과만족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1>은 부분채택 되었다.

둘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기대의 구성요소 가운데 직업선택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은 부분채택 되었다

셋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은 부분채택 되었다.

따라서 각 학과에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취업지도, 취업정보제공과 더불어 각 학과의 사회적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미래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학생들이 전공학과에 만족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고은미(2005). 체육계열 전공자들의 직업기대가 전공 및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2] 권혁진(2009). 체육계열 대학생의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3] 김상진 · 김재엽(2007). 경호관련학과 대학생들의 학과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스포츠티서치 18(4), 3-14.
- [4] 김수영(2007). 사회복지학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진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5] 서우석(1994).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변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6] 송운신 등(2003). K대학 치위생과 재학생의 학과만족도 조사 연구. 경북논총, 7:297-316.
- [7] 신혜정 · 허선(1998). 충남지역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진로방향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 1998: 47-69.

- [8] 심은숙(2003). 대학생의 성별, 학년별 전공학과 만족도 및 학과인기도에 따른 진로성숙수준의 차이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9] 이선영(2009).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요인 및 전공만족, 진로선택에 대한 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10] 이억범(2004). 대학생의 다중지능과 환경 변인이 진로 결정 수준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11] 이진희(2009).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진로스트레스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12] 이재구(2007). 대학 체육계열 전공자들의 전공만족이 직업기대의식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위덕대학교.
- [13] 정보연(2010).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직업선택에요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14] 정유진(2011). 식품영양학전공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직업선택요인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15] 정채기(1991).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16] 정희영(2010).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17] Harren, V. 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18] 하혜숙(1999). 대학생의 학과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 [19] 한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2012).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한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 [20] 허진규(2005). 대학생의 라이프 스타일과 학과(학부)생활 만족도 연구에 관한 통계적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저 자 소개]



김진환 (Kim Jin-Hwan)

1987년 2월 체육학 학사
1991년 2월 체육학 석사
1999년 8월 이학박사

email : kjh2323@yongin.ac.kr



조철규 (Cho, Cheol Kyu)

2009년 2월 체육학 학사
2011년 2월 교육학 석사
2014년 1월 경호학박사과정

email : cck1001@nate.com